

강진군, 슈퍼푸드 '쌀귀리' 수확 시작

관내 약 150 농가 444ha 면적서 생산

보리 대비 1.5~2배 이상 고소득 작목

강진군에서 쌀귀리의 본격 수확이 시작됐다.

군은 2010년부터 쌀귀리를 재배하기 시작했으며 다년간의 재배 노하우로 아미노산과 베타글루칸 함량이 풍부한 고품질 쌀귀리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쌀귀리는 결귀리와 달리 추운 지역에서 재배하기 어려운데

강진군은 겨울 날씨가 온화해 쌀귀리 재배 최적지로 손꼽힌다.

쌀귀리는 벼를 수확한 후 가을에 심어 이듬해 5월 말부터 6월 초에 수확하는 월동 식량작물이다.

보리 대비 1.5배~2배 이상 소득이 높은 고소득 작물로 강진군 농업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겨울철 논 소득작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

다. 올해는 관내 약 150 농가, 444ha의 면적에서 쌀귀리가 생산되고 있으며 지난 1일부터 본격적인 수확을 시작해 관매가 시작되고 있다.

이에 군 농업기술센터는 적기 수확 및 수확 후 관리(건조저장) 현장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강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겨울 따뜻한 날씨로 올해 수확량이 전년에 비해 10% 이상, 평년에 비해 5%이상 증가해 약 20억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올해 처음으로 국

내 최대의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에 강진산 쌀귀리 300톤을 입점시켜 도시 소비자들이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강진산 고품질 쌀귀리를 만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도안면 옥전마을에서 쌀귀리를 재배하고 있는 이재창(64)씨는 "이번 겨울 따뜻한 날씨와 적기 파종 및 적정시비를 통해 쓰러지지도 않고 병해충도 없는 최고품질의 쌀귀리를 다수확 하게 됐다"며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강진산 쌀귀리를 도시 소비자들이 많이 찾아 주셨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완도 금일에서는 다시마 수확이 한창

첫 위판 kg당 최고 7400원 거래...평균 단가 4370원

본격적인 다시마 수확 철을 맞아 완도군 금일읍에서는 다시마를 채취하고 건조하는라 어민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지난 1일에는 다시마 초매식을 갖고 마른 다시마 위판을 시작했다.

첫날 다시마 위판량은 22톤을 기록했으며, 6월 2일 기준 마른 다시마 가격은 kg당 최고 7,400원, 평균 단가 4,370원으로 거래됐다.

이는 작년 평균 단가 5,100원 대비 85% 수준이다.

완도 다시마는 청정해역에서 자라 맛과 향이 뛰어나기로 알려져 있는데, 완도군의 다시마 생산량은 전국 대비 80%를 차

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179,482톤을 생산했다.

주로 금일읍과 고금면, 약산면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1,129어가에서 식용 다시마를, 2,669어가에서 전복 먹이용 다시마를 양식하고 있다.

다시마는 다량의 칼슘, 철분, 마그네슘, 비타민C 등을 함유하고 있으며, 특히 몸속 미세먼지와 중금속을 흡착해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하는 수용성 알긴산도 풍부하다.

또한 다시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에 도움이 되며, 대장암 발생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완도=김광수 기자

윤재갑 국회의원·이동진 진도군수 "지역현안 함께 해결하자"

진도군, 국비확보·군정 현안 사업 등 정책 간담회

진도군은 4일 윤재갑 국회의원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 해결과 국고 건의사업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진도군은 이날 군청 회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군정현안과 SOC 사업 등 국비 확보 필요 사업에 대한 설명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재갑 국회의원 비롯해 이동진 진도군수, 김상현 의장, 김희동 전남도의원, 군청 국·과·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 주민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진도 지역의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진도군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중앙부처와 국회에서 구심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도군은 간담회를 통해 중점 추진 사업으로 ▲금호호-군내호 지구 농촌용수 연결사업 ▲국도 18호선 도로 확장공사 ▲국가어항, 지방어항 건설사업 등 활발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국도 18호선 기점 변경(조도대교 건설) ▲진도 해안일주도로 국도 77호선 승격 ▲진도-영암 간 고속도로 건설 ▲국립 현대



미술관 진도관 건립 용역비 ▲도시민 귀농 이주단지 조성 ▲국립한국민속예술대학 건립 등을 공유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내년 가용예산 감소에 대비, 국비 확보가 시급한 사업에 대한 정당, 국회 차

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한편 진도군은 앞으로도 국회의원과 정책협력을 강화하고 현안을 함께 풀어가기 위해 정책간담회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진도=조상용 기자

영암군, 스트레스 해소 위해 오피스 짬짬이 건강교실 운영



영암군은 지난 2일부터 코로나19 대응으로 피로가 누적된 직원들의 피로 완화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오후 시간대를 활용하여 3개월 과정으로 주 2회 보건소 신체활동 전문인력 지도하에 오피스 짬짬이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오피스 짬짬이 건강교실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사무직 직장인을 대상으로 틈새 시간을 활용

하여 컴퓨터증후군 등으로 신체 부위별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어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한 운동을 실시하여 자발적, 적극적인 참여 속에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군은 참여자를 중심으로 비만도 측정,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프로그램 시작 전, 후 건강검사를 실시하여 비교 데이터를 제공함은 물론 신체활동, 비만예방, 영양관리를 위한 통합건강관리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영암=조대호 기자

면역력 증진에 '장흥표고버섯' 탁월

에르고스테롤·비타민D, 바이러스 대항 면역세포 활성화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면역력 증진에 큰 도움을 주는 표고버섯이 주목받고 있다.

표고버섯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등에서 기혈 돋우고 바랍을 치료하며 피를 부순다고 기록되어 오래 전부터 약용적 가치를 인정받아 왔다.

표고버섯에는 에르고스테롤, 비타민D, 베타글루칸 등 다량의 유용물질이 함유되어 있는데, 최근 여러 연구논문에서 이 물질들에 대한 인체 내 순기능과 효능이 보고되고 있다.

표고버섯의 대표적 기능성 물질인 에르고스테롤과 비타민D는 바이러스와 세균에 대항하는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고 면역물질을 증가시킨다.



또한 에리타데닌은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혈액 순환을 도우며, 렌티난은 항종양 물질로 1980년대 일본에서는 표고버섯에서 정제된 렌티난 주사가 항암제로 개발되기도 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서 인정한 베타글루칸 성분은 미국 암학회에서 포스터 발표로 채택되어 다시 한번 표고버섯의 면역력과 항암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함평천지농특산품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함평천지 농특산품을 만나보세요.

함평 로컬푸드 직매장 Tel 061-324-8331







